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결과

2002. 8

통 일 부

목 차

1. 실무대표접촉 결과

가. 개요

나. 의의 및 성과

2. 향후 추진방향

가. 합의보다는 실천에 중점

나. 평화와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다. 국민적 합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시

3. 남북관계 현안 추진상황

- 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 ②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③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가?
- ④ 임진강 수방사업 등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문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가?
- ⑤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진전상황과 향후 계획은?
- ⑥ 남북간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 ⑦ 정부는 서해교전과 관련 북측에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⑧ 북측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문제는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 ⑨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하며 향후 북한이 식량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 첨부 :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1. 실무대표접촉 결과

가. 개요

-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2002.8.2~8.4 금강산에서 개최
- 남북 쌍방은 진지한 자세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주요 합의사항

- ①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2.8.12~8.14 서울에서 개최
- ②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아래 사항을 협의·해결
 - 4.5 공동보도문의 이행 일정 확정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 문제
 -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문제
 -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및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실현
- ③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 참가 및 남측의 편의 보장
- ④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를 적극 지원

나. 의의 및 성과

1)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 마련

- 이번 실무대표접촉은 제2차 경추위(5.7) 무산 이후 정체된 남북관계의 부정적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음.
- 남북관계는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북측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였음.
- 우리측은 제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정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구도를 짜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 북측도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보다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 특히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계기로 상봉이 보다 정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이로써 그동안 합의된 사항들이 실천 단계로 넘어가 남북 화해협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2) 서해교전 관련 확고한 입장 표명

- 우리측은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 그동안 일관되게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음을 상기시키고 북측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였음.
 -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북측은 이에 대해 수석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재확인하였음.
- 아울러 앞으로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당국자회담을 열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3) 화해·협력의 분위기 정착

- 남북 민간급 교류를 문화·체육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남북 당국에서도 지원해나갈 것을 공식화하여 최근의 정색국면을 극복하고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음.
- 우리측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북측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게 됨으로써 체육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 차원의 8.15 남북공동행사와 9.8 축구경기를 남북 당국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행사의 이행과 성공을 보장함.

4) 북한 변화의 흐름 가속화

- 최근 북한이 북미대화, 북일대화를 진전시키려는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는 북한의 대외관계 및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문에서의 변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서
-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진전은 북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2. 향후 추진방향

가. 합의보다는 실천에 중점

- 남북관계에서는 합의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임.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철저히 준비하여 경협사업과 민간차원 행사들에 대한 합의사항들이 곧바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후 합의사항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자는 데 역점을 둘 것임.
- 국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간에 합의한 사업들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할 것임.
 - 기합의된 경협사업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는 사업은 경의선 철도연결로서, 가급적 조기 착공을 추진할 것임.
 - 또한,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과 서해사태의 재발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주력할 것임.
 -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면회소 문제를 매듭짓고 추석을 계기로 상봉을 정례화할 것임.
 - 기타 동해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방사업 등 이미 거론되어온 사업은 「경추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착수, 진행되도록 합의를 유도할 것임.

나. 평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 조성

-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의 북한 참가는 체육교류를 통해 남북 간 화해협력의 정신을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는 명실상부한 평화와 화해의 제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은 문화관광부,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해나갈 것임.
- 아울러 8.15 남북공동행사, 9.8 축구경기 등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다. 국민적 합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시

- 정부는 각종 회담을 준비하고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당 및 국회에 보고, 협의해나갈 것임.
 - 또한,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
- 이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임.
- 또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음.

3. 남북관계 현안 추진상황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 정부는 그동안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기반사업으로서 한반도 동서 양측을 잇는 철도 및 도로 연결에 주력해 왔음.
 - 남북간의 교통망 연결사업은 경제협력사업의 차원을 넘어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심축 ▲개성공단 및 금강산 개발의 시금석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수반하는 등의 의의를 지님.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1, 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으로,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내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에 합의한 바 있으나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무장지대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측은 비무장지대 이남 철도·도로 공사를 2001년말 완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남북이 조기에 비무장지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북측 구간 공사는 대규모 병력이 건설에 투입될 경우 철도(12km) 4개월, 도로(12km) 1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됨.
 - * 경의선 철도 연결필요구간은 총 24km(문산-군사분계선:12km, 군사분계선-개성:12km), 도로는 총 17.1km(통일대교북단-군사분계선:5.1km, 군사분계선-개성:12km)
- 한편 지난 4.5 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 바 있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함께 동해안을 잇는 인적·물적 교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임시도로 1.5km 구간의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임.

②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대와 북측은 ▲관광객 수에 따른 대가 지불 ▲육로관광 추진 ▲2개월내 관광특구 지정에 합의(2001.6.8)하여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금강산관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함.
 - 관광공사 참여(2001.6.) 및 금강산관광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2002.1.) 이후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되었음.
- 정부 차원에서도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여(2001.10.) 육로관광 추진, 관광특구 지정 등의 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해결해나가야 하며, 특히 육로관광 및 특구지정의 조속한 실시가 중요함.
 - 육로관광의 경우 임시도로(1.5km) 건설에 합의할 경우 연내 실현도 가능한 상황임.
 - 아울러 우선 총석정·동석동 코스 개방과 자유통행 확대 실시 등 관광활성화 조치도 촉구할 것임.

③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가?

- 현대와 아태간 합의(2000.8.) 이후 2000년 말에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대측은 북측에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을 전달하기도 하였음.
 - 토지공사와 현대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토지공사가 자금조달, 설계, 감리를, 현대는 시공을 담당
- 제1차 경추위(2000.12.)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4.5 특사 방북시에도 개성공단 건설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음.

- 북측의 「공단개발특별법」 제정 등 조치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주체간 협상 착수를 권고하며, 당국차원에서는 가능한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임.

- 올해 중 1단계 공사(100만평, 3년 소요)를 착공하여 조기에 시범공단 조업이 가능하도록 추진

4] 임진강 수방사업 등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문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가?

- 임진강 수방사업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었으며, 임진강수방실무협의회(2001.12.)에서 우리측이 북측에 합의서안을 전달하기도 하였음.

- 최근 들어 금강산댐(임남댐)의 안전문제와 북한강의 수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는 상황임.

- 금강산댐 문제 역시 남북공유하천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임진강수방사업과 함께 남북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조사부터 시작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함.

5]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진전상황과 향후 계획은?

-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 적십자회담 개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적극 추진해왔음.

- 남북정상회담 이후 3차례의 적십자회담을 개최,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통해 총 4,5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두차례의 생사·주소확인 사업 등을 통해 총 10,909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2명의 서신교환이 이루어졌음.
- 향후 개최될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는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상봉을 정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임.

⑥ 남북간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1차례의 국방장관회담과 5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음.
 -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쟁위험 제거 및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협력문제에 합의,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 이후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열릴 군사당국자회담에서 서해교전사태와 같은 무력충돌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 쌍방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이미 타결된 바 있는 「군사보장합의서」의 발효를 추진함으로써 경의선 등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7] 정부는 서해교전과 관련 북측에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는 서해교전 이후 북측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으며,
 - 이번 실무대표접촉 과정에서도 수석대표 기조발언 등을 통해 서해교전과 관련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음.
 - 북측은 7.25 전통문을 통해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하였으며, 이번 접촉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재확인하였음.
- 정부는 향후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쌍방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에서 이를 협의한다는 입장임.
 - 우선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초보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하면서 점차 재래식 군비통제를 시작하는 등 남북기본합의서상 불가침 합의(제12조)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8] 북측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문제는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 체육분야 교류협력의 확대와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북측 대표단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및 백두산 성화채화 등을 추진하여왔음.
 - 대회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 초청서한을 발송(2001.10.)하고, 대북서한(2002.6.)을 통해 성화채화, 예술단 방문, 대회참가를 촉구한 바 있으며, 4.5 특사 방북시에도 북측의 참가를 제의하였음.

- 한편 북측은 7.29 장웅 IOC위원이 김운용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남북체육교류 협의를 제의한 바 있음.
- 정부로서는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 북측이 참가입장을 분명히 한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하에 이번 행사가 남북 체육교류 확대와 신뢰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 북측은 백두산 성화채화에 협조하고 20개 정도의 종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9]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하며, 향후 북한이 식량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 북한은 매년 20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수요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정부는 이처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성의껏 대북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 향후 북한이 우리측에 식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남북관계 상황, 국내 식량재고,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지원 문제를 협의해나갈 계획임.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공 동 보 도 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 실무대표접촉이 2002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① 이미 합의한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문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남북 군사당국자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4.5 공동 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확정문제
 - ②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 가족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4. 쌍방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하였다.

2002년 8월 4일 금강산

〈소 관 부 서〉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2담당관실	
연 락 처	3703-2341

